

젊은세대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이미정*

1980년대말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선언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 결혼퇴직제가 보편화되었었고 이러한 관행은 여성의 경력 단축과, 임금이나 업무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살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젊은세대에서 교육효과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여건이 이들 세대에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위해 여성개발원의 2001년 취업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하여 젊은세대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효과의 변화이다. 이전 세대의 부정적 교육효과는 사라지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교육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가족 여건이라는 것이 여성이 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과는 달리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일에 대한 여성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만, 남편의 의견은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젊은세대에서도 여성의 의견이 남편의 의견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세 이하 젊은 세대 여성을 고려할 때,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교육효과도 크게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세대에서도 대졸이상의 학력이라는 것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의 일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작용하지만, 가족이라는 맥락에 처하면,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젊은 세대에서 교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과거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결혼이나 가족의 여건은 여성취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경우 이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핵심개념: 성차별, 여성고용, 교육효과, 결혼·가족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BK 연구교수

I. 연구배경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저조한 노동시장참여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지적되었는데,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고학력 여성은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하여 가장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하여 1980년대 말 두드러진 사회제도적 변화 중 하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다. 이 법의 제정은 여성이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여성 고용과 관련된 차별적 관행은 별다른 제도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까지도 결혼과 더불어 여성을 퇴직시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으로 여성의 직업 경력은 결혼과 더불어 단절되었고 임금이나 업무배치에 영향을 미쳤다. 크게 보면 결혼 후 퇴직 관행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낮게 유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남녀고용평등법 실시 이후 여성 인력에 대한 기업이나 사용자측의 공개적이며 명시적 차별은 주춤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배경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된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을 들 수 있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은 1980년대 중반이후 두드러졌는데, 이것은 1980년대 초반 대학정원 증가로 인한 고학력 인력의 양산과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초 대학정원 증가로 인하여 1985년대 중반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급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서서히 회복되지만, 최근의 대졸 취업률은 1980년대 초의 대졸 취업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가시화된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은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 고학력 취업이 노동과잉 공급에 더 타격을 받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취업에는 경제적 요인이외에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사회적 여건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취업을 묘사하는 다양한 용어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만들어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경제학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

활동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여성의 행동이나 역할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사회에서 여성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여건은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되었지만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규범은 아직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임금에 부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취업과 관련된 변화가 일기 시작한 80년대 말의 사회제도적 변화가 이후의 고학력 여성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변화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세대 여성들의 취업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교육효과의 변화와 가족 여건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II.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기존연구에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이나 저조한 취업률은 빈번하게 지적되어왔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에 대해 체계적 연구가 확산되기 시작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점증하여 고학력 여성의 취업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과 그리고 차별에 대해서 기술적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어, 고학력 여성의 저조한 취업률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아직도 부족하다.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기존연구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영화 1988; 김수곤 1976; 김수곤·심경옥 1984; 이주호 1995; Bai and Cho 1995; Lee, 1998; Park 1990).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은 90년대 중반이후 향상되는 기미를 보이지만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선진국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여타 학력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저조한 노동시장참여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특이한 경우로 지적되고 있다.

1.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는 임금을 고려한 개인의 선택과 같은 경제적 요인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성별역할 분업에 따른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기혼 여성 취업에 대해 기업체나 사회의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직업 경력이나 지위 그리고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Goldin 1990; Kessler-Harris 1981). 전통적 성별분업이 강조되는 산업화 초기 특히 중류 계층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주 부정적인데, 이것은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¹⁾ 1980년대까지 우리사회에 보편적이었던 화이트칼라직종에서의 결혼퇴직제는 바람직한 여성 역할에 대해 중류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점과 여성노동을 값싸게 활용하려는 기업주의 동기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²⁾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제정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사회나 정부에서는 여성고용에 별 관심이 없었다. 여성 노동 공급은 충분하였고, 여성고용에 대한 인식은 저임금으로 단순업무 배치하여 활용하면 된다는 정도였다 (이미정 2001). 그러나 1980년대 말 남녀차별적 고용관행을 문제삼는 여성계의 반발과 1980년대 말 제조업에서의 여성인력 부족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입법화하게 된다 (어수봉 1991). 이 법은 특별법인데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뿐만 아니라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김엘림 1995; 어수봉 199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이후의 차별 금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동 법에서는 근로계약 성립 전의 모집과 채용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다 (어수봉 1991). 이러한 법의 제정은 고학력 여성

1)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전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인 여성 중 기혼여성의 비중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은 여성의 취업을 결혼 전으로 한정하게 하고, 이것은 여성의 경력이나 임금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2) 노동시장에서의 진입이나 경력, 배치 등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직업 지위나 평판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종에서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퇴직제가 주로 적용된 직종은 전문직 일부나 사무직에서였다.

취업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입직이나 승진에서의 차별은 주로 고학력 여성이 집중된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의 차별 규제는 고학력 여성의 직업적 커리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제도 이외의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80년대 말 이후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미정·정진성, 1999).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중류계층 이상 여성의 취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고학력 여성 취업에 호의적인 사회적 관점이 형성되는 것과 연결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신규 노동시장 구직자 중 대졸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취업에 대한 여성의 태도도 적극적으로 변화한다. 80년대 초반 이전 고학력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직업적 커리어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학력 여성들 중에서 직업적 커리어를 결혼만큼 나아가서는 결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직업적 커리어는 결혼에 의해 중단되거나 조정되는 것으로 생각되기보다는 결혼과는 별개로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전 세대의 여성과 다른 이러한 사고방식이 실제 이들의 삶에서 구현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이슈이지만 젊은 세대 고학력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사회의 인식 변화는 괄목할만한 것이다.

2. M 곡선의 변화

1980년대 말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한 두드러진 특징은 25세-29세 집단 여성의 참여율 증가이다. 연령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보면 1960년 이후 25세-29세 집단은 가장 적게 일하였는데, 이는 결혼이나 출산에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이들 집단의 참여율은 1990년 42.6%로 급상승하고 1995년에는 48.8%로 30세-34세 연령 집단만큼 일하며, 2000년에는 55.9%에 이르렀다 (<표1 참조>). 2000년에 이르러서는 25세-29세 집단은 연령별 곡선에서 최저점을 벗어났다. 대신 2000년에는 30세-34세 집단이 48.5%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

다. 코호트별로 20대의 여성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25세-29세의 퇴장률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2 참조>).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노동시장참여율은 전통적으로 M 곡선을 보여주었는데, 1990년까지는 25세-29세 집단이 최저점을 형성하였으나 1995년을 지나 2000년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변화한다. 2000년에도 연령별 참여율 곡선은 여전히 M자형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저점이 30세-34세로 이동했다. 이러한 연령별 참여율에 있어서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령별 참여율이 M자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성의 취업이 결혼·출산·자녀양육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M자형의 패인 부분이 완만해지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 나타난 M곡선의 저점이 25-29세에서 30-34세로 이동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떠한 요인들이 M곡선의 저점 이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은 여성들의 직업적 커리어가 가족요인에 의해서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이것은 여성의 취업이 결혼이나 육아 등 가족생활에 과거와 같이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러하지만, 단지 시간이 연기된 것을 보여주는가? 또 과거 25-29세 저점이 30-34세로 이동하는 것은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을 부분적으로나마 구하려고 한다.

<표1> 젊은 여성의 연령별 연도별 노동시장참여율

(단위: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1980	53.5	32.0	40.8	53.1
1985	55.1	35.9	43.6	52.9
1990	64.6	42.6	49.5	57.9
1995	66.1	47.8	47.5	59.2
2000	60.8	55.9	48.5	59.1

자료: 2001.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표2> 세대별 20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변화

(단위: %)

1980년 20-24세	53.5	1985년 25-29세	35.9
1985년 20-24세	55.1	1990년 25-29세	47.6
1990년 20-24세	64.6	1995년 25-29세	47.8
1995년 20-24세	66.1	2000년 25-29세	55.9

자료: 2001.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3. M 곡선의 변화와 고학력 여성

M자 곡선의 변화는 여성의 취업이 결혼·출산·자녀양육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경향은 고학력 여성에 경우에도 그러한가?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부정적 교육효과는 개선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답을 구하기 결혼 여부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다

(<표3> 참조). 아래 <표3>에 제시된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자.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혼여성들의 경우는 해당기간동안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한다. 다시 말하면 미혼여성 집단에서는 교육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유배우자 여성들의 경우 상황은 아주 다르다. 유배우자 여성 집단에서는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유배우자의 경우 중졸이하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한다. 이 표를 통해서 1990년대와 2000년에도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은 결혼여부, 가족에 대한 책임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라는 것이 고학력 여성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취업에 호의적인 일련의 많은 사회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가족은 고학력 여성의 취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미혼여성은 15세 이상 인구 중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혼여성들의 취업행태는 전체 여성의 취업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표 3>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단위: %)

	1990		1995		2000	
	미혼	유배우자	미혼	유배우자	미혼	유배우자
중졸이하	15.7	57.3	8.1	58.0	7.1	57.6
고졸	66.1	34.7	66.9	40.7	54.0	46.7
전문대졸	87.1	44.0	85.9	40.5	87.0	42.6
대졸이상	78.8	39.6	85.0	45.0	81.3	46.3

출처: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통계연보.

2000년에도 고학력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기존 자료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고학력 여성들이 미혼일 때 활발히 일하다가 결혼 후 많은 여성들이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취업을 중단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고학력 여성들은 2000년이라는 시점에서 새로운 가족의 여건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제재가 선언된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려 한다.

III. 연구방법

1. 로짓모델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수집된 여성개발원의 '여성취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취업에 대한 교육효과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피고 아울러 가족이라는 여건이 젊은세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자료분석을 위해서 로짓 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로짓분석은 종속변수에서 사례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지 않고 하나의 범주나 다른 범주에 분포될 경우 특정 변수에 의해 종속변수의 분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Menard 2002). 종속변수가 1의 값을 가지지 않을 확률에 대해 1의 값을 가진 확률의 비(ratio)에 로그값을 취한 것을 로짓(logit)이라고 한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Logit}(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여기서 $\text{Logit}(Y)$ 는 $\ln\{P(Y=1)/[1-P(Y=1)]\}$ 으로 정의된다.

현재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을 하고 있는 실업인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고, 비경제활동 상태인 경우 0 값을 부여하였다. 가족이 미치는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설명변수가 여성의 일에 대한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젊은 세대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이 과거세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한다. 젊은세대에서 가족이라는 여건이 과거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취업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세대별 비교를 위해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집단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2. 자료와 변수선정

15세에서 65세 이하, 재학중이지 않은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전체

4824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각각 변수별로 결측값을 갖는 응답자의 수가 다르게 나타나 실제분석에서는 결측값에 따라서 사례수가 감소한다. 교육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한정하였다.

노동시장참여 여부가 종속변수이다. 이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문항이 있다. 지난 일주일간 주된 활동이 취업인지, 실업인지, 비경제활동 상태인지를 묻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실업상태이지만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을 노동시장참여자로 규정했고 비경제활동 인구를 비참여자로 규정했다.

설명변수는 크게 개인관련 변수와 가족관련 변수로 구분된다. 응답자의 교육은 무학자에서 대학원졸업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 범주를 결합하여 교육변수를 중졸이하, 고졸, 초급대졸, 대졸이상으로 나누었다. 교육은 모델에서 범주변수로 사용되며 중졸이하가 준거집단이다.

산업사회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 역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역할에 참여하는데는 성별 역할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에 대한 여성의 태도 변수를 만들었는데 관련문항으로 '여성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성들처럼 성공하려고 애 쓸 필요가 없다,' '여성이 잘 되는 길은 자신의 성공보다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의 세가지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 세가지 문항은 여성이 취업을 남성 보조를 위한 역할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세가지 문항을 결합하여 일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우 그렇다'는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로 생각하는 전통적 입장이며 5점 값을 취한다.

가족관련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결혼지위 변수는 세 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유배우와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같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미혼이다. 결혼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이혼·별거·사별의 경우를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묶고, 미혼을 분석에서 준거집단으로 사용하였다.

<표4> 변수의 기술적 통계: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전체

중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노동시장참여	.521	.500
설명변수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등학교	.434	.496
초급대학	.058	.233
대졸이상	.202	.401
연령		
일에 대한 태도	2.67	.859
가족관련변수		
결혼지위		
유배우자	.698	.459
이혼·별거·사별	.103	.304
미혼		
가구소득	144.5	129.3
6세미만의 자녀	.145	.355
남편의 태도	3.38	1.03
대도시거주	.592	.492
사례수	4,824	

자료: 2001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가족의 소득이 여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주 소득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중

요한 것을 고려하여 여성의 일에 대한 남편의 태도를 변수로 도입했다. 남편의 태도에 대한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5점은 '매우 찬성'을 의미한다. 전체 여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4.5%인데 해당 자녀가 있는 경우 1을 없는 경우 0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도시지역 거주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도시 규모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광역시도 이상 지역을 대도시 지역 변수로 만들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표4>에 정리되어 있다.

IV. 분석

<표5>에서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전체를 합하여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전 연구에서 여성의 교육효과가 약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2001년 자료에서도 여성의 교육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여타 학력 집단여성에 비해 초급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나 여성 자신의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여성의 교육효과가 2001년에도 부정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러 변수 중 여성이 일에 대해 지니는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에 대한 태도 변수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일에 대한 태도 값이 여성이 일과 관련하여 남성을 우선하고 자신의 일을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태도를 지닌 경우 높은 값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독립적이기보다는 전통적 태도를 고수하는 여성의 태도가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가족관련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상태가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

3) 본 연구는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분석에 있어서 모든 학력 집단의 여성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고학력 집단 여성의 취업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고학력 집단 여성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도 있지만, 여타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 집단의 취업에 관한 행동을 살펴보고 하였고 때문이다.

데, 미혼에 비해 유배우자나 이혼·별거·사별과 같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로짓분석 : 전체여성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등학교	-0.224***
초급대학	-0.492***
대졸이상	-0.434***
연령	-0.002
일 태도	-0.321***
결혼지위	
유배우자	-1.106***
이혼·별거·사별	-0.532***
미혼	
가구소득	.000
대도시거주	-0.107
상수	2.211***
사혜수	4,197
-2 Log Likelihood	5,536.03

*** p < .01

자료: 2001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교육효과나 가족여건이 노동시장 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기혼자 집단과 미혼자 집단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서 표본을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으로 나누었다. <표6>에 제시된 결과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 6세미만의 자녀와 남편의 태도 변수가 추가되었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2개의 모델을 시도해보았다. 하나

는 연령을 연속변수로 넣어보고 다른 모델에서는 범주화된 변수로 넣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 교육의 부정적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 분석에서 기혼여성은 유배우자 여성과 이혼·별거·사별로 결혼의 경험이 있는 여성을 포함하는데, 전체 표본의 80%로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표6>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로짓분석: 기혼여성

	모델 1	모델 2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등학교	-.125	-.113
초급대학	-.564**	-.458*
대졸이상	-.587***	-.546***
연령	-.024***	
범주화된 연령		
18 - 34		.685***
35 - 44		1.020***
45 - 54		.756***
55 +		
일 태도	-.077	-.076
결혼지위		
유배우자		
이혼·별거·사별	1.673***	1.791***
가구소득	-.001**	-.001***
6세미만자녀	-.843***	-.573***
남편태도	.942***	.945***
대도시거주	-.028	-.012
상수	-3.548***	-5.435***
사례수	2,614	2,614
-2 Log Likelihood	3,033.19	3,005.626

* p < .10 ** p < .05 *** p < .01

자료: 2001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연령을 두 가지의 형태로 시도하여 연속변수와 범주화된 변수로 사용해보았다. 연속변수의 경우는 연령은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낸다. 연령을 범주화할 때 젊은 연령층을 34세를 기준으로 묶었다. 우리나라에서 남녀고용 불평등에 대한 법적인 체제가 선언되고 실시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졸 여성 세대를 살펴보기 위해서 34세를 선택하였다. 범주화된 연령을 보면 35세에서 44세에 이르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대했던 34세 이하의 젊은 여성집단의 노동시장참여는 45세-54세 집단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젊은 세대 기혼여성들이 가족형성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자녀양육으로 분주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참여가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기는 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198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라는 것이 이들의 노동시장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또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여건들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혼·별거·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유배우자 여성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 이외에 가구소득, 6세미만의 자녀유무, 남편의 태도는 모두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에 대한 여성 자신의 태도는 중요하지 않은데 남편의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기혼여성의 경우는 가족여건이 노동시장참여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성 개인과 관련된 변수의 경우 여성의 교육의 부정적 효과는 전체 여성집단에서보다 기혼여성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나며, 일에 대한 여성 개인의 태도가 전체 여성집단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혼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에서는 기혼여성 집단에서 세대에 따라서 여성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다. 특히 교육효과가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지에 관심이 크다. <표7>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효과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는 교육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기서도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이나 초급대졸보다 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전까지 계

속 나타났던 교육의 부정적인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적어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4세 이하 여성 집단에서 교육의 부정적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른 세대에서 교육효과는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다른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5세-44세에서는 초급대학 교육의 부정적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45세-54세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부정적 효과가, 55세 이상 집단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의 교육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7>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로짓분석 : 기혼여성

	18세-34세	35세-44세	45세-54세	55세 이상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등학교	.952	.035	-.362*	-.357
초급대학	.980	-1.015**	-1.223	1.570
대졸이상	.597	-.363	-.467	-.993*
연령	.053*	.023	-.082**	-.093*
일 태도	-.088	-.063	-.104	.062
결혼지위				
유배우자				
이혼·별거·사별	.588	-.428	4.872	1.318*
가구소득	-.002*	-.003***	-.001	.000
6세미만자녀	-.792***	-.556*	-.185	.806
남편태도	.738***	.924***	1.058***	1.208***
대도시거주	.012	-.045	.012	-.027
상수	-5.234***	-2.890	-4.095	-1.053
사례수	706	920	604	384
-2 Log Likelihood	809.46	1,087.62	690.47	358.79

* p < .10 ** p < .05 *** p < .01

자료: 2001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연령효과도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세대·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연령의 증가는 노동시장참여 증가로 이어지는데, 45세 이상의 세대에서는 노동시장참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모든 세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구소득의 부정적 효과는 젊은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6세미만 자녀의 부정적 효과도 44세 이하 세대 여성에서 나타나는데, 34세 이하의 젊은세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 자녀의 육아가 여성이 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7>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가장 강력하고 분석에서 가장 강력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효과는 여성의 일에 대한 남편의 태도이다. 34세 이하의 젊은세대에서도 일에 대한 본인, 자신의 태도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지만, 남편의 태도는 의미 있게 나타난다. 남편의 태도는 젊은세대보다는 나이든 세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혼여성의 일과 관련된 사회적 태도가 그동안 호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보다는 남편의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의 결과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인데 기혼여성의 경우와 아주 다르다. 미혼여성은 표본에 있는 모든 연령층의 여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연령분포는 젊은세대로 편중되어 있다. 표본의 미혼여성 중 28세 이하 여성은 76%를 구성하고 29세-34세는 18%이고 35세 이상은 6%에 불과하다. 34세 이하 여성이 전체 기혼여성의 96%를 구성하고 있어서 미혼 집단의 여성 대부분은 1980년대 말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금지를 선언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실시되는 초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결혼하지 않은 젊은세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

위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혼여성 젊은 세대에서는 교육의 부정적 효과가 사라졌었는데, 미혼 젊은세대 여성에게서는 교육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그다지 고

무적이지는 않다. 미혼의 젊은 세대에서도 대졸 여성들은 고졸, 초급대졸보다 적게 일하지만, 고졸 이상 학력 집단에서 노동시장의 참여정도는 교육수준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표8>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로짓분석: 미혼여성

교육수준	
증졸이하	
고등학교	1.682***
초급대학	1.707***
대졸이상	1.637***
연령	
- 28세	-.208
29세-34세	-.636
35세 이상	
일 태도	-.600***
가구소득	.000
대도시거주	-.269*
상수	1.270**
사례수	887
-2 Log Likelihood	1,010.552

* p < .10 ** p < .05 *** p < .01

자료: 2001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1980년대 말부터의 사회경제적 제도의 변화가 고학력 여성고용에 대해 효과적이었다면, 이들의 경우 초급대졸 이상이 고졸보다 그리고 대졸이 초급대졸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증졸이하 교육소지자에 비해 여타 학력이 긍정적 교육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지만, 아직도 교육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일과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 미혼여성은 기혼여성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기혼여성의 경우 일에 대한 여성 자신의 태도가 일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변수이다. 여성이 자신의 일을 남성 일의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사회적 성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실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더 많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V. 결론

1980년대 말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제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기존 입직과 승진과 관련된 차별은 고학력 여성들이 배치되어 있는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집중되었기에,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고학력 여성 취업에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1980년대 말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증가하였고, M 곡선의 저점을 형성하였던 25세-29세 집단이 2000년에는 더 이상 저점을 형성하지 않는다. 연령별 노동시장참여는 M 곡선의 저점이 완만해지기는 하였지만, M 곡선의 존재는 여성의 취업이 여전히 결혼이나 가족관련 요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최근에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80년대말 사회제도적 변화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젊은세대 여성들은 취업과 관련하여 가족여건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했다.

기혼여성과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하여 젊은세대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효과의 변화이다. 이전 세대의 부정적 교육효과는 사라지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교육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가족여건이라는 것이 여성이 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과는 달리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맥락 하에서는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의지라는 것이 여성을 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일에 대한 여성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만, 남편의 의견은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젊은세대에서도 여성의 의견이 남편의 의견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세 이하 젊은 세대 여성을 고려할 때,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교육효과도 크게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세대에서도 대졸이상의 학력이라는 것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의 일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작용하지만, 가족이라는 맥락에 처하면,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젊은 세대에서 교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과거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결혼이나 가족의 여건은 여성취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경우 가족여건과 관련하여 더 많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참고문헌

- 장이수 · 신경아. 2001. 《여성과일: 한국여성노동의 이해》. 동녘.
- 김수곤 · 심경옥. 1984.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요인 분석>. 정책보고 84-05.
한국개발연구원.
- 김엘림. 1994. “신정부 여성노동정책의 동향과 과제.” 《여성과사회》
한국여성연구회.
- _____. 1995. “현행 여성관계법령의 구조와 정비방향.” 《여성연구》 가을호. 제
48호.
- 김영화. 1999.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과 남녀 임금 불평등.” 《여성연구》
6(2): 108-151.
- 어수봉. 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이미정. 1996. “한국노동시장에서 여성교육의 저활용.” 《한국인구학》 19(2):
107-137.
- _____. 1997. “인적자본으로서 여성교육의 의미.” 《한국인구학》 20(2): 135-160.
- _____. 2002.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Working Paper #32.
- 이미정 · 정진성.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노동시장참여; 1980-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21(4): 75-114.
- 이주호. 1995. “여성인력의 수급과 개발.” <여성인력 양성과 노동시장간의 연계
강화>.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
- 장지연. 2001. “고학력 여성 경제활동의 국제비교.” 《여성과 직업》.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정진화. 1996. <고학력화와 인력정책의 방향>. 산업연구원.
- 조정아. 2000. “대졸여성의 노동경험과 직업의식 변화.” 《노동과 페미니즘》 조
순경 엮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통계연보.
- Bai, Moo Ki and Woo Hyun Cho. 1995. Women’s Wages and Employment
i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Goldin, Claudia. 1989. Understanding the Gender Gap: an Economic History of
American Women. Oxford University Press.

- Kessler-Harris, Alice. 1981. *Out to Work: A History of Wage-Earning Women in the US*.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Mijeong. 1998.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Korea: Women's Lives under Institutional Conflict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Menard, Scott. 2002.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age University Paper.
- Park, Young Jin. 1990.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Trends in Levels, Patterns, and Differentials during 1960-1980."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Young College-Educated Women

Mijeo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In 1987,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was enacted, which indicated the institutional regulation against gender-discriminatory labor practices. Until the late 1980s, women were forced to quit upon marriage. It had influenced negatively on women status in the labor market. In this paper, I try to examine how the institutional change affects young educated women's work behaviors. The change of the education and family effect on work will be examined. For analysis, data from 2002 Women's Work Survey is employed. The results show the followings. Among women of young generation, negative effect of education has disappeared and turned out to be positive among the never married. But, marriage and the family responsibility still influence negatively on young women's participation into the labor market. In making a decision to work, husband's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wife's own. But, among the single, women's own attitude toward work plays an important role. In overall, women of young generation is also influenced by the family responsibility as much as the previous generation. The negative effect of marriage and the family responsibility on women's working is stronger among the college educated women.

Key Words : gender-discriminatory labor, educated women's work behaviors, The negative effect of marriage and the family responsibility on women's working